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월 5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누가복음 15장 11-24절

설교제목 : “회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과 관련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존에 재산상속을 요구합니다.(눅15:11-12) 상속분(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 생존에 자녀가 재산상속을 요구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아버지 생존에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는 유대 사회에 있을 수 없는 패륜적 요구입니다. 이런 패륜적인 아들은 신명기21:18-21에 보면, 동네 장로가 발견할 때는 돌을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부당한 요구의 근거는 한마디로 자기주장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주장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대로, 내 소견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13절) 이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독립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성 없이 스스로 자기 맘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아담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치는 어려움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경멸하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 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13절 하반절-16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은 둘째 아들처럼 **자유가 아닌 또 다른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물질과 욕망의 노예로, 권력과 힘의 노예로, 사탄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허랑방탕한 삶, 낭비의 삶이요, 무의미한 삶, 세월을 허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결핍이 생겨 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내재적 자원에 갇혀 버리기 때문에, 결핍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속 결핍은 일어나고, 그 결핍의 끝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심지어 품꾼도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진정한 참 누림과 행복, 그리고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17-20절 상반절) 구원의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실체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없

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도 흥한 물골로 가지고 지치고 힘든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옵니다. 무척이나 먼 거리인데 자신을 향해 달려옵니다.(20절)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달려오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을 한 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여기서 왜 아버지가 달려왔습니까? 패륜적 자식이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아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맞춤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본문의 아버지의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언제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은 회개보다는 받아주심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손상은 둘째 아들이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관계의 회복은 아버지의 주도적인 행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인 받아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모든 자녀됨을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눅15:22). 구원은 돌아왔다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아버지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구원의 기초입니다.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만찬을 베풀습니다.(눅15:23-24)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은 최상의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죄인된 한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탕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회개한 탕자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상속을 요구한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 3)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 4)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합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구원의 회개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